

아시아의 진보 사상가들 - 왕후이

〇 〇

[아시아의 진보 사상가들](3) 중국 약자 대변하는 비판적 지식인 왕후이

경향신문 | 하남석 | 2012. 09. 17. 03:17

새로운 사회주의 찾는 '신좌파'의 대표 주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했는데, 정작 잡은 쥐는 한 마리도 없지 않은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에 대해 농민공(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빈곤층)들이 자조적으로 비꼬는 말이다.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중국은 무섭게 성장해 지금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 됐지만, 세계 최대의 빈부격차와 도농격차라는 그들도 떠안고 있다. 서구의 근대화론과 발전주의 신화에 사로잡힌 중국의 대다수 지식인들은 이런 문제들을 건전한 시장경제를 이루고 강대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성장통으로 치부했다. 이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이가 바로 왕후이(汪暉·53·사진)다.

왕후이는 원래 문학연구자로 루쉰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중국 근현대사상사를 주로 연구했다. 하지만 그는 문화대혁명의 끝무렵이었던 교고 시절 하방(下放)을 통해 2년간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대학원을 다니던 1989년에는 톈안먼 시위에 참여했다가 조사를 받고 다시 하방돼 농민들과 함께하며 농촌의 실상을 낱알이 살펴봤다. 이러한 경험은 왕후이가 아카데미 안에 현학적으로 머무르기보다 노동자, 농민 등 사회 하층의 입장에서 중국의 사상과 역사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됐다. 그의 연구와 관심 영역은 원래 전공인 문학과 사상사를 뛰어넘어 정치경제학, 역사학, 사회학을 넘나들며 고전적인 의미에서 '비판적 지식인'의 풍모를 보여주고 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평잡지인 '두수(讀書)'의 편집주일을 맡아 현실과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조직하고 담론을 주도해왔다.

'자유주의적 근대화론'을 받아들인 중국의 개혁파는 국가계획 중심의 사회주의 경험을 폐기해야 할 유산으로 간주한다. 앞으로는 서구식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왕후이는 경제사상가 카를 폴라니와 세계체계론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뿌리부터 해체한다. 그는 중국의 시장경제가 국가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한편, 자본주의 도입 자체도 전 지구적 자본주의 확장,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개혁파들은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농촌의 위기로 발생한 수많은 실업자와 농민공의 문제,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사회보호의 해체, 생태위기 등 주요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여전히 강력한 국가개입과 시장경제의 부족' 때문이라며 일국적 차원으로 분석한다. 반면 왕후이는 전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비판 속에서 사고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계획)와 시장의 대립으로 세상을 보는 개혁파와 달리, 왕후이는 그 이분법이 은폐하고 있는 현실의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들춰낸다.

최근 왕후이는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자들은 다당제를 비롯한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중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왕후이는 이미 서구의 정당정치가 대의(代議)를 위한 투쟁에서 권력 분배 메커니즘으로 변형됐다고 본다. 엘리트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인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탈정치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식민지 경험 이후의 인도, 사회주의 이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로의 움직임인 '색깔혁명', 최근 중동의 '재스민혁명' 등을 살펴보면 서구의 정치제도 수입은 과두세력의 집권과 사회적 혼란으로만 이어졌지 실질적 민주주의를 전혀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왕후이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적 평등이라는 실질적 내용을 포괄해야 하며, 대중이 배제되지 않고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 미디어, 법률 체계와 경제제도를 새로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연장선에서 그는 얼마 전 발표한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통해 현재 중국 정치는 밀실정치 속에 갇혀 공개적 토론을 거부하고, 권력투쟁으로 정치적 경쟁을 대신하고 있다고 걱정적으로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빌미로 중국의 권력 엘리트들이 대중의 의사와 반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또 한 차례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왕후이의 분석은 중국의 '신좌파'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신좌파는 국가사회주의 모델 및 마오쩌둥주의를 견지하는 구좌파와는 달리 시장의 신화와 일련의 자본주의적 기획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중국 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를 겪고도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항해 중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하남석 | 한국외대 중국학과 박사수료 >